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 모 두 말 씀 -

2018. 5. 28.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경영인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중소기업 단체장님과 대표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9988’이라는 숫자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 총 고용인원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중소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성장’ 역시 혁신적 아이디어와 모험정신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성장으로 달성 가능한 것입니다.

2. 정책금융 지원방향

금융위원회는 금융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부동산 금융 중심의 시중자금 흐름을 기업금융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금융도 담보나 보증, 매출·재무구조 중심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술금융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성장성에 기반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❶ 지난 3월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회수자금이 원활하게 재투자되는 선순환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성장지원펀드’가 출범하였습니다.

펀드를 통해 민간 중심의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주 확정된 추경을 반영하여 3,500억원을 확대한 총 2조3천5백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❷ 4월부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불가피한 경영애로가 발생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제도를 신·기보 등 공공기관의 신규 보증분부터 폐지하였습니다.

지난 4.2일 시행 이후, 약 3천건, 1조원 규모의 보증이 연대보증 없이 발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차질없이 정착되면 기존 금융관행을 변혁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❸ 또, 지난주에는 부동산 등 전통적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산금융이 잘 정착되면 창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 유무형의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향후 5년간 3만개 기업이 동산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지역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중소협력업체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자금지원 연장과 특별보증 등
신규 자금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지원대책 실적(억원, 5.18 기준) : (기존 대출·보증 연장) 795, (특별보증) 56.3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관련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금융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서울대 공대 교수진의 저서인 「축적의 시간」에 따르면,
선진국은 오랜 산업의 역사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왔고, 중국은 짧은 산업화 시대의 한계를
광활한 내수시장이라는 공간적 이점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시킬 시간도,
공간적 이점도 갖지 못한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을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 방향 설정과 더불어,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창조적 축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금융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생생한 의견은 향후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